

귀촌일기-농업은 전남의 블루오션 시장이다

아침을 열며

박찬규
진이찬방식품연구
센터장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상재해와 싸우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후변화가 심한 농촌에서는 올해도 농산물의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번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 과일의 작과가 예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하우스 보호막의 경우에도 성장이 느려 개화 시기가 뒤쳐지고 있다. 특히 딸기는 풍부한 일조량이 필요한데 계속되는 비로 당도가 약하고 쉽게 물러져서 상품가치가 없어 출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도 농민들은 농사가 천직이라는 사명으로 오늘도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농사 준비에 한창이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신선한 먹거리는 국민이 행복을 누리기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곡물의 자급률이 약 21%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은 기후변화로 곡물 수입이 줄어들 경우 그야말로 대환란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야 할 때

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중화학 및 반도체 등의 제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국부를 키운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탄소배출 문제 및 기후변화로 식량의 자급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마다 극심한 가뭄이나 폭우 등으로 농업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위한 거점으로 대규모 생산기지에 적합한 전남이 주목될 수 있다.

과거 농업소득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1970년대부터 고향을 떠나 도회지로 간 인구 이동이 5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농업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반대로 귀농하려는 도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도 연간 억 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3가구나 있다. 과거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던 일이지만 지금은 품종 선택을 잘하고 성실하게 농사일에 힘쓰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행착오의 어려움도 있지만 뻥뻥한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다. 게다가 농업은 다시금 국가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자연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6차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

다. 요즘은 거주문제, 직장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농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좋게 보고 젊은 층에서도 일찌감치 농촌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농촌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누구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바로 기후변화이다. 비오는 날이 많다 보니 일조량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농작물이 서서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귀농·귀촌 후에 의욕을 가지고 특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지만 일조량 문제로 농산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해의 어려움이려면 견딜 수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겨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정기간 적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기상재해에도 생산이 가능한 특작물 재배법을 미리 공부하여 귀농·귀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농업이 전남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농민들만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기관의 노력이 따라줘야 한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인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도정을 기대해 본다.

社說

5·18 총집결 여야, 헌법수룩 목소리낼때

3년연속 참석...개헌 논의 침묵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당 신임 지도부와 원내외 인사들이 총집결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최근 당 소속 21대 의원 전원에게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44주년 기념식 참석을 당부했다. 또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 4·10 총선 당선인 및 낙선인들도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당 관계자는 15일 전했다.

국민의힘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5·18 기념식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왔다. 여권이 5·18 기념식에 3년 연속 방문은 큰 변화다. 하지만 여당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 시장이 회동 후 전했다. 지역민들은 보수 정당의 5

·18기념식 참석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득표 활동으로 보고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크다. 그만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한 여권의 '진정성'에 늘 의문을 품었다.

사실 5·18 헌법수룩 의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다. 대부분 진보 진영에서 논의됐지만 40년 가까이 논쟁만 벌인 채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고, 참석할 때마다 "오월 정신은 헌법 그 자체"라고 강조했고, 유공자 가족에게 "매년 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치지형의 변화로 인해 '5·18 정신'의 헌법수룩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여야는 사사건건 정쟁만 벌이는 모습에 매우 안타깝다. '5·18 정신'은 더 이상 '진보·보수 대결'의 정치 문제가 아니다. 5·18 헌법수룩은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공통 의제다. 양 진영이 갈등을 접고, 국가 차원의 통합을 원한다면 5·18 헌법수룩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때다.

달빛철도 '에타 면제 확정' 속도 내야

국토교통부, 에타면제 추진

광주-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되는 '달빛철도' 건설 방식에 대한 기획재정부 검토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말께 '달빛철도 단·복선·일반 철도 건설' 방식이 담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적정성 검사 등을 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노선 등 건설 방식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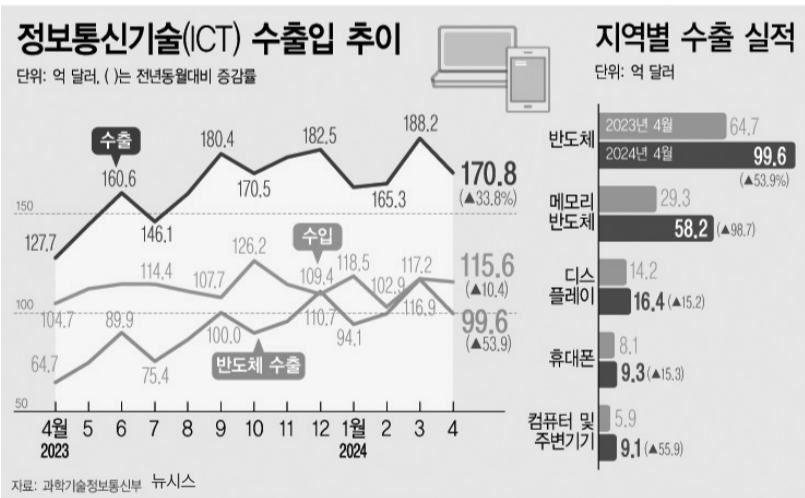
반면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철도를 기점으로 문화·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를 구상하고 있어 복선, 2029년에 조기 개통 등을 희망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속도감 있는 절차 추진을 위해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달빛철도 사업비는 속도 250km기준, 일반철도 단선으로 건설할 경우 6조429억원, 일반철도 복선 8조7110억원, 속도 350km 기준 복선 11조2999억원이 예상된다. 달빛철도가 완

공되면 광주와 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만큼, 조속한 건설이 필수다. 달빛철도는 대구·광주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영·호남 동서 화합을 위해 지난해 8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역대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리며 순조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고속철도를 놓으면 일반철도보다 2분 더 일찍 도착하지만, 무려 2.5조원이 추가되는 등 사업 적절성 논란이 일자 '고속'을 빼고 '달빛철도'로 추진하게 됐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가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하고 또 다시 경쟁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달빛철도의 경제성만 따지는 수도권 논리대로라면 지방은 영원히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동서 화합 차원으로 달빛철도를 바라봐야 한다. 광주와 대구는 고속철도는 포기하더라도 달빛철도사업이 좌절해서는 안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부디 정부부처 역시 달빛철도가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통합의 미라는 점을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서석대



다시 또 오월이다. 어찌자고 오월이 다시 왔다. 지난해도 똑같이 말했다. '다시 또 오월이다'라고.

우리는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 됐는가? 오월의 전국화는 얼마나 진행됐는가.

때만 되면 오월을 입에 걸던 정치인들은 올해 5·18 앞에서 떳떳한가? 사적지는 보존됐는가. 억울함은 풀렸는가.

모지의 풀 꽃은 봄이라고 고개를 내미는데, 왜 광주의 오월은 오월이어서 봄을 맞은 이리도 처연하게 하는가.

다시 또 오월

44년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중년이 될 기간이다. 총알이 빗발치던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던 이들은 이미 백발이 됐거나, 하늘의 별이 됐다.

명령한 이들 역시 세상에서 하나 둘 사라져 갔다.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울부짖는 이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마저 파괴한채 두 다리를 뺀고 무사히 생을 마쳤다.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매년 외쳐대고 있지만,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왜곡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재생산 되고 있다. 심지어 44년 전의 오월을 모르는 10대까지도 조롱에 참여해 왜곡의 게임을 만들고 있다.

진상을 조사하라고 모인 사람들은 되레 진상을 흔들며 놓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양심인양 그날 방아쇠를 당긴 이들의 편에 서서 보고서를 올렸다. 그들도 희생자라고.

지켜야할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머리를 깨고, 겁탈하고, 칼로 찌르고, 울부짖는 이들을 견어차고, 끌고 가고.

'폭도니까. 폭도였으니까' 라면서 보고서 내내 광주의 모든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던 이들이 희생자라면, 우리는 정말 폭도가 되는 것일진데. 진상조사위는 이 보고서를 막을 길이 없다고만 한

다.

도대체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아니 우리가 뽑지 않았어도 때만 되면 광주에 내려와 '뿌리'라고 외쳐대던 이들은 뭐하고 있는가.

1년에 한번 내려와서 고개 숙이고 노래 한 곡 부르고 떠나면 할일을 다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이 봄을 우리는 서럽게 맞아야 하는가. 누가 답 좀 해줬으면 하는데, 답할 이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만 있다. 그렇게... 다시 또 오월이 왔다. 어찌자고 오월이 냉큼 와버렸다. 지난해와 다를바 없는 오월이 또 우리 곁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